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

내년 총선은 누가 승리할까? 국민의힘? 민주당? 아니면 제3당? '한 달이 1년'이라는 한국 정치에서 총선은 265일 남긴 현 시점에서 총선 승부를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럼에도 내년 총선 결과를 예상한다면 세 가지다. 국민의힘 승리 또는 민주당 승리 그리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없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한 수의 의석을 가진 경우다. 국민의힘 또는 민주당 승리는 한 정당이 국회 내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경우다.

물론 진행 중인 제3 당 시도가 성공할 수도 있다. 이때 '성공'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제외한 제3 정당이 1당이 되거나 또는 독자적으로 과반 의석을 가졌다는 게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성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한국 정치의 혁명적 상황'이다. 그만큼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이다.

제3 당 입장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한 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제3 당이 캐스팅 보트가 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기대다. 이조차도 거대 양당의 원심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면서 동시에 제3 당이 유권자

윤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

요구와 불만의 분출구 역할을 담당해야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국민 의힘 또는 민주당의 총선 승리다. 먼저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전국 선거 3연패의 반전이다. 총선 승리의 민주당은 2026년 지방 선거와 2027년 대선 승리를 향한 반(反)윤석열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민주당 총선 승리는 윤석열 정권의 국민적 심판이다.

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여소야대로 사실상 '식물 정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때 대통령과 의회의 대립은 격화될 것이고 더 이상 대통령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여당은 지방 선거와 대선 그리고 다음 총선을 위해 독자 행보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말이 좋아 독자 행보지 대통령과 거리 두기 또는 대통령 버리기다. 여권은 각자도생의 시대다.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전국 선거 3연승으로 정권 교체는 완성된다. 2022년 대선과 지방 선거 연승을 통한 중앙과 지방 권력의 교체와 총선 승리의 국회 권력 교체로 완결된다.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이다. 대통령 임기 3년차지만 취임 기준으로 보면 임기 만 2년에 한 달 정도 모자라는 시점의 총선이라는 '정치적 운'도 따른다. 최소한 투표 참여가 높은 전통적 지지층의 결집으로 총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카르텔'과 '반국가 세력'에 점점 갇히고 이재명 체제의 총선이나를 둘러싼 내부 분열은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국민의힘 총선 승리는 한국 정치의 진화를 가져올

까? 여야 대립은 협치로 바뀌고 정치는 국민 삶의 개선을 선도하는 본연 역할을 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여대야소 또한 극단적 여야 대립의 다른 모습이었다. 누가 먼저인지는 모르지만 거대 여당은 야당을 무시하고 소수 야당은 장외 투쟁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국민의힘 여대야소는 대통령 마음대로 여당 마음대로를 가능하게 할까? 우선 윤석열 권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비정상'의 문재인 정부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권력 기대의 최소한이다. 총선에서는 정상화 이후 어떤 어젠다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정치 개혁부터 시작인데 진정성도 고민도 없어 보인다.

결국 총선 후 여소야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대야소에서도 여론의 지지와 (최소한의) 야당 인정과 묵인은 필수적이다. 여소야대든 여대야소든 '대립과 교착의 정치'에서 벗어나려는 윤석열 권력의 결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제도로 해결할 수 없는 정치의 영역이고 대통령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인격화된 권력'을 넘어 국민 삶의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민주화된 권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국회 다수당의 총리 복수 추천'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하는 게 출발이다. 기득권 포기와 공익과 공존에 우선, 총선 승리의 단거점 비법이고, '대한민국 정치 업그레이드의 선도자' 퇴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켜주는 장기적 안전판이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종교칼럼



최현열
광주온교회 담임목사

어릴 적 홍수로 인하여 갑자기 불어난 강물에 동네 아이가 떠내려 가고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난 사촌형도 사랑한 일이 있었다. 며칠 동안 가족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찾았어 애썼지만 결국 찾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평소에는 뛰어넘어 다니고 수영도 하고 물고기를 잡던 작은 강이었는데 큰비가 인하여 넘쳐나는 물은 무서울 정도로 그 위력이 대단했다. 밤새 퍼부은 비로 집안까지 물이 차 오르고 말 그대로 물난리가 났었다. 그럼에도 침없이 무릎까지 차오른 길을 침범하며 돌아다녔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잠마가 지나고 해가 떠 점점 물이 빠졌을 때 여기저기 그 흔적들이 보였다. 집집마다 젖은 가루며 옷가지 등을 내어 놓고 말리느라 부산했고, 흙탕물을 퍼내고 뒤야 내기에 정신이 없었다. 논과 밭은 떠내려 가고 쓰러지고 진흙 속에 묻혔던 것들을 복구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홍수 중에 가장 최악인 것은 100여 년 전 1925년 을축년에 있었던 대홍수이다. 닷새간 쏟아진 강수량이 753mm인데 가능하기 힘든 수치이다. 올해 큰 피해를 입힌 폭우의 양이 대략 500mm 안팎인 것

기후 위기와 미움받을 용기

을 감안하면 그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실로 엄청난 강수량이 아닐 수 없다. 한강 최고 수위인 11.76m가 그 시기에 기록한 것이고 아직까지 없었다고 한다. 당시 7월 경기도 시흥군에 속해 있던 가리봉 지역에 큰비가 내렸다. 748.9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 미국 북장로교회에서 파송한 하미련 선교사는 사비와 교회 재정을 털어 이재민들에게 짐쌀을 나눠주며 도움을 돌보았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것도 서러운 시기에 이러한 재앙이 겹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우리는 첨단 도시화를 이루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편이성을 추구하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홍수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 아닌가 싶다. 예나 지금이나 치산치수(治山治水)를 국가 경영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있다. 현대에도 그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강수량은 사람이 조절하기는 현재 과학기술로도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 그 물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투자를 해야 한다. 과거 4대강 사업을 추진할 때 더욱 치밀하게 준비하고 지류 하천의 정비도 예산에 걸맞게 진행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기도 하다. 날씨가 주기가 있으면 좋으련만 그렇지도 않고 예측하기도 힘들니 결국 예방이 최선책인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이상 기후로 극단적인 날씨가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를 접한다. 지구의 한쪽에서는 섭씨 40도가 넘는 이상 고온으로 시달리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엄청난 폭우나 태풍이 그 지역

을 쓸대발로 만들고 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엘니뇨, 라니냐 하면서 이러한 기후 현상을 해석해 내고 있지만 이미 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기적인 인간이 욕심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저버린 탓이라 할 수 있겠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환경을 잘 가꾸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땅을 다스리고 살라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들과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쉬운말 번역)라고 말씀 하신다. 다스리라는 것은 억압하고 통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고 돌보라는 것이다. 또한 병들고 아픈 곳을 낫도록 살피라는 뜻도 있다.

상식적으로 지구의 물의 양은 일정하다. 지구 온난화는 결국 뜨거운 기온이 수증기의 양을 증가시키고 공기의 흐름이나 바다물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 폭우를 쏟아부은 것이 아니겠는가. 지구 온난화 문제는 50년 전부터 나온 말이다. 피해를 최소화 줄일 수 있도록 대비를 철저히 할 뿐 아니라 병들고 지쳐서 잔뜩 화난 지구를 위로하고 다스려서 아픈 곳을 치유해 나가야 한다. 마태복음 24장에는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때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하였다. 과연 기독교인들이 이 시기에 무엇으로 미움을 받을까. 발전을 멈추고 지구를 살리자라고 운동하고 환경 파괴 행위를 비판하며 멈추게 해 보자. 그러면 미움을 받지 않을까 싶다.

기고



김지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지역본부 기업지원부장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다. 지난 4년간의 암울했던 코로나 시절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마득하게 느껴진다. 내 몸의 일부처럼 작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막 벗었을 때 느꼈던 허전함도 잠시, 이제 다시 마스크를 잠시라도 쓰려면 엄정 답답함을 느낀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무언가를 잘 받아들이기도 하고 불편해하기도 한다.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도 마찬가지로 같다. 그렇다면 장애에 대한 인식은 우리 의식의 어느 지점에 와 있었을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산업 안전 보건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과 더불어 5대 법정 의무 교육에 포함된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적으로 장애인의 인권 및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수록 먼저 떠올리는 단어는 불편, 부족, 공포, 두려움 등이라고 한다. 어디서부터 이런 편견이 유래되었는지는 얼마나 많은 우리말의 속담이나 표현 속에서 부족하고, 불편하고, 불안정한 것을 표현할 때 장애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하는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왜 필요한가

비장애인이 갖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장애인 고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2021년 기준 장애인 고용률을 보면 전체 인구 고용률 61.2%에 비해 34.6%로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 장애인 채용 계획이 없는 사업체에 이 이유를 조사해 보니 장애인을 고용할 적합한 직위가 부족해서(52.6%), 능력을 갖춘 장애 인력이 부족해서(33.0)라고 답한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실제 '장애인인데 일을 잘할 수 있을까?' '함께 일하는데 위협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사업주나 인사 담당자를 종종 마주칠 때가 있다. 장애인 고용이 채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 후 직장 내에서 적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인식 개선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에 대해 갖는 부정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전환하여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고 더불어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등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인권을 위한 법들이 제정되고 수없이 개정되어 왔지만, 실상 장애인 고용의 현실은 편견과 선입관 등 부정적인 인식의 벽에 여전히 가로막혀 있다. 법 보다 인식 개선이 절실한 이유이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 교육화 된 지는 벌써 15년이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무 교육은 교육 미실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이후인 2018년부터 실시되었다.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는 1년에 한 시간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교육을 원하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주는 공단이 제공하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식 개선 전문 강사와 더불어 파트너 강사로 장애 당사자가 함께 동행하여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다. 파트너 강사들은 본인의 직장 생활 경험을 들려주기도 하고, 노래나 연주 등 공연을 곁들이기도 한다. 파트너 강사가 주는 반향이 상당히 크다. 아마도 짧은 시간이지만 장애에 대한 편견을 풀고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공감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 장애 출현율은 5.1%이다. 여섯 가구 당 한 가구는 장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 발생 원인 중 88.1%가 후천적 원인에서 기인하는 것을 보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장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흔히 '장애인'의 상대말로 '비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필자는 '비(非)장애인'을 '비(備)장애인'이라고 설명한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예비 장애인이기 때문이다. 결국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해 노력한다면 진정한 장애인 인식 개선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식 개선으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걷고 그 능력을 보려는 노력, 장애를 차별이 아닌 다름으로 인정하려는 노력이 더 확대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상습 침수 지구' 지정도 관리도 어렵도 하나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침수 취약 지구 관리가 주목구속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객관적인 기준 대신 임의로 지구를 선정하는가 하면 근본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산하 다섯 개 자치구의 침수 취약 지구는 동구 여섯 곳, 서구 네 곳, 남구 일곱 곳, 북구 여덟 곳, 광산구 12곳 등 모두 37곳에 달한다. 침수 취약 지구는 집중 호우 때 침수 피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통상 과거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을 주로 선정한다. 이렇다 보니 광주시가 선정한 침수 취약 지구와 자치구가 선정한 지구가 각기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한다. 선정도 구체적인 안전 진단을 거치지 않은 채 과거 피해 발생 여부만으로 결정하는 탓에 정확한 원인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밀 진단 없이 대책을 세우다 보니 침수 피해가 재발하는 악순

환이 빚어지고 있다.

광주 남구는 지난 2018년 8월 시간당 60mm의 폭우로 백운광장의 주택과 상가 120여 곳이 물에 잠기자 집중 호우에 견딜 수 있도록 직경이 더 큰 관로로 변경했다. 하지만 지난달 27일 시간당 51mm의 비가 쏟아지자 광장에 또다시 물이 차올랐다. 남구는 이번엔 하수구 입구에 설치된 빗물받이에 쓰레기들이 걸려 빗물이 도로로 넘쳐흘렀다고 진단했다. 관리 부실을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이처럼 상습 침수 지구로 지정돼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상습 침수 지구는 대부분 도심 저지대에 위치해 있는 만큼 배수 펌프나 탱크 등 침수조를 설치해야 하지만 빗물받이 등 맨질실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극단적인 폭우가 빈발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는 면밀한 사전 점검과 과감한 예산 투입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침수 사고의 반복을 막아야 할 것이다.

운행 중지·지연 빈발...물먹은 호남선·전라선

극한 호우가 지속되면서 호남선·전라선 철도의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 운행되는 사례가 잇따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18일 오후 2시부터 호남선 광주 송정~목포 구간과 전라선 익산~여수 엑스포 구간 KTX 운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경부선과 경전선 일부 노선도 KTX 운행이 중지됐다. 앞서 17일 오후 4시부터 무궁화호·새마을호 등 전국의 모든 일반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된 데 이어 KTX 운행마저 멈춘 것이다.

코레일은 이번 운행 중지 조치가 지속된 장맛비로 노반(선로 밑 지반)이 약해져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피해 예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운행 중지 선로가 광주·전남에 몰리면서 지역민들의 원성이 쏟아져 나왔다. 하루 4만여 명에 이르는 호남선·전라선 이용객들의 갈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운행 중지 노선들은 모두 고속철도가 아닌 일반 철도 구간이며, 호남선·전라선의 경우 일반 철도이면서도 고속열차 주

행이 가능한 구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노반이 콘크리트인 고속철도와 달리 일반 철도는 흙인 경우가 많아 산사태와 토사 유입 위험이 있다. 특히 광주 송정~목포 구간은 2020년 말 완공 예정이었던 호남선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노선 확정 지연으로 늦어지면서 여객 열차로 남야 운행 중단으로 이어졌다.

그나마 광주 송정역과 용산역·수서역 등 오가는 KTX와 SRT 등 호남고속선 열차는 운행을 계속하고 있지만 서행으로 인해 수십 분씩 연착되고 있다. 코레일은 오늘부터 열차를 정상 운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 주말 다시 장맛비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추가 운행 정지를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열차 운행 조정은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조치지만 녹장 공사로 차별과 소외의 상징이었던 '물먹은 호남선'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정부는 2년 뒤로 예정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조기 완공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지난 겨울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카타르 월드컵에서 팬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축구 신(神)들의 라스트 댄스(Last Dance)였다. 10년 넘게 발롱도르를 나눠 가진 메시(36)와 호날두(37) 그리고 모드리치(37)에게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었기 때문이다. 메시는 마라도나 이후 무려 36년 만에 조국 아르헨티나에 우승컵을 안기며 축구 팬들의 큰 감동과 함께 GOAT(Greatest of All Time: 역사상 최고의 선수) 반열에 올랐다.

남자 월드컵만큼 주목 받아지는 못하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2023 FIFA 여자 월드컵'이 열리고 있다. H조에 속한 한국의 1차 목표는 16강 진출. 25일 콜롬비아, 30일 모로코전에서 이겨야 8월 3일 강호 독일과의 승부를 편하게 지켜볼 수 있다.

여자 월드컵은 1991년 이후 여덟 번 열렸는데, 한국은 세 번 출전해 2015년 16강에 진출했고, 2019년 대회에서는 조별 리그에서 3전 전패를 했다. 현재 한국의 FIFA 랭킹은 17위. 콜롬비아(25위)나 모로코(72위)보다 앞서고 독일(2위)에

는 한참 뒤진다. 한국 여자 축구 최고의 해는 2010년이라 할 수 있다. U-17(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 결승에 올라 일본을 승부차기 끝에 5 대 4로 이기고 역사상 최초로 FIFA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그해 열린 U-20 월드컵에서도 3위를 차지해 '여자 축구 황금 세대'의 등장을 알렸다. '지메시'라는 찬사를 받은 지소연은 청와대 초청 오찬에서 발랄한 춤을 취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번 대회는 황금 세대가 함께 호흡을 맞추는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자 여자 축구를 이끌어 온 큰언니들의 라스트 댄스 무대다. 킴키퍼 김정미(38) 윤영글(35), 공격수 박은선(36) 지소연(32), 미드필더 조소현(35) 그리고 수비수 김혜리(33) 임선주(33) 등이 어느덧 서른을 훌쩍 넘겼다. 그리고 이들 뒤에는 16세 막내 혼혈 선수 케시시 유진 페어와 원주은, 권다운 등 고등학생들도 있다. 16강을 넘어 8강, 4강까지 화려한 마칭표를 향한 '국대 골때리'들의 마지막 춤을 즐겨 보자. /유재만 편집담당자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주간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구(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80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